



#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에제기엘 예언서 17:22-24	제2독서	코린도 2서 5:6-10	복음	마르코 4:26-34
--------	------	----------------------	------	------------------	----	----------------

## 고작 겨자씨라니!

70년대 영국의 유명한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노래 중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 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모든 반짝이는 것을 황금이라고 생각하는 숙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사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의 눈을 흐리는 반짝이는 것들을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 다니면서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반짝이는 것을 잡고 나면 그 광채는 금방 사라져 버리고 환멸감 속에서 또 다른 반짝이는 것을 쫓아간다. 진짜 반짝이는 것,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반짝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그 답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는 아마도 각자가 꿈꾸는 행복에 대한 환상이 충만히 실현된 유토피아 같은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느님 나라라는 말에서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가 겨자씨라는 말에서 환상이 사라져 버리는 환멸을 느끼게 된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니! 예수님이 나에게 겨자씨 한 알을 주시면서 “잘 키워봐.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크게 실망하며 그 씨를 내팽개칠 것 같다. ‘고작 겨자씨라니. 반짝이기는커녕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아마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두지 않는 것, 나의 인생 가치 서열에서 최하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인 듯하다.

현대인들이 별 가치를 두지 않고 혹은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영역인 것 같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우리는 우리의 정신 안에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혀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게도 우리의 정신은 ‘~에 불과해’ 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습득한 것, 우리가 제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개인 안에 닫혀 있는 체계가 아니라, 신성의 영역으로 열려 있거나 혹은 연결된 체계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하느님의 영역이 드러나는 곳이며 하느님의 작용하심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다.

그는 무의식을 드러내는 정신 현상인 꿈과 환상을 관찰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남을 경험과학적으로 밝혔다. 인간의 정신 안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지혜로 이끌어 주는 중심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밝힌 것이다. 자신은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관찰되는 실제적 현상으로서 하느님을 말하는 것일 뿐 하느님에 관해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을 통해 하느님이 다가온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의 품격은 신성의 차원으로 드높여졌으며,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바깥의 반짝이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내면의 반짝임에 주목해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데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6월18일(화)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208.00
			교 무 금	\$ 3,720.00
6월19일(수)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자 선 비	\$ 85.00
			성 물 방	\$ 242.00
6월20일(목)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사랑의급식	\$ 207.00
			성소후원금	\$ 155.00
6월21일(금)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오전 10시		
6월22일(토)	연중 제11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5,617.00
6월23일(주일)	연중 제1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9명 성인:160명
교무금 봉헌자	손창식(7-12)김수용(7-10)주문엽.국부자(5-8)김현준.금외주.이서향.최재진.유창언(5-6)정훈((1-4)오종신(1-3)김영숙.김순애.김선식.김규철.이유빈.김규대.안강순.이경희(6)			

**‘아멘’의 의미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기도 할 때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미사전례에서 사제가 기도를 바치면 신자들은 함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아멘’이란 무슨 뜻이며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문의 결구로 ‘아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아멘의 의미**

히브리어에서 ‘아멘’은 무엇인가 확실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구약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동의하거나 확신할 때의 표현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 찬미 기도나 청원 기도를 바치며 끝맺을 때 그에 찬동하며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의 결구로 ‘아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와 유대인들의 제사의식 때 쓰던 기도의 결론 구절 ‘아멘’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느님께 바치던 찬미 기도나 청원기도의 끝에 ‘아멘’으로 응답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전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할 뿐 아니라 꼭 이루어 주시기를 재청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아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공동으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영원과 신뢰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사 중에 사제가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함께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기도 내용에 동의를 표하며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재청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드리는 기도 끝에 신자들이 ‘아멘’이라 함당하게 응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도 내용을 귀담아듣고 뜻을 잘 알아들으면서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무성의하게 “아멘”이라고 건성 응답한다면 하느님께 얼마나 진실이 결여되고 예의 없는 자세를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미사 중 신자들은 여러 차례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데요. 다음 두 차례의 ‘아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기도” 직전 “마침 영광송”을 마치면서 응답하는 ‘아멘’입니다. 사제는 성체를 모신 성반과 성혈을 담은 성작을 두 손으로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때 신자들은 ‘아멘’으로 환호하며 찬동합니다. 다른 한 번은 영성체 때인데요.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면, 신자는 “아멘!”이라 응답하고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그때의 “아멘”의 뜻은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교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교회)인 여러분은 응답하면서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은 ‘아멘’하며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아멘’이란 응답에 참될 수 있도록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십시오.”

**‘아멘’**

짧은 말이지만 전례와 기도 중에 기도 내용에 마음을 다해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혹시 습관적으로 ‘아멘’을 읊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생	(생일) 박춘자 마리아 영육건강	안선미 미카엘라
연	이규형 체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생	(생일) 전정옥 율리안나 영육건강	이나숙 데레사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김기상 바오로 가정 평화	김영희 수산나
연	황준영 라파엘 영혼	최금주 요안나	생	이경임 루시아 빠른 건강회복	박수옥 글라라
연	오영애 바울라 영혼	오소정 오수진	생	이대원베드로, 이주연 크리스티나 영육건강과 가정	대건안드리아회
연	이병원 요한, 이희일 데레사 영혼	이세실리아			사회복지부
연	(기일) 김순택 요셉 영혼	박모란 글라라			아빌라데레사회
연	차옥금 크리스티나 영혼	박수옥 글라라			1-1 구역원
연	김안나 영혼	김영희 수산나	생	김흥자 그라시아, 박춘자 마리아, 신부순 데레사, 이의웅 베드로, 안선미 미카엘라 영육건강	연영회
연	이정자 발비나, 윤태옥 안나 영혼	안강순 안젤라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축하드립니다.

김원현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6/29)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서품 10주년 (6/28)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교우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념미사 및 축하식: 23일(주일) 교중미사중

2. 본당 꾸리아

일시: 16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브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3. 본당 울뜨레아

기간: 16일(주일) 오후2시 성가대방  
 본당 꾸르실리스따는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4. 본당 사목회의

기간: 23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6월 구역모임

5구역: 16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구역: 23일(주일) 오전9시 미사후 김영준(맥)  
 (카풀 가능합니다)  
 8구역: 16일(주일) 사랑의급식후 친교실  
 9구역: 16일(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6. 단체활동

사회복지부: 16일(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7. 본당 재정감사 (정기)

일 시: 22일(토) 오전10시~  
 감사인: 본당 감사위원

8. Christus 청년피정 참가

기간: 28일(금)~30일(주일)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참가자: 최준우 루카, 최희연 스텔라, 윤지현 알폰소  
 권오승 제임스, 김지훈 요셉 (이상 5명)  
 청년피정 참가자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 새크라멘토 교구 종신부제 10주년 축하 모임

일시: 29일(토) 오후12시~4시  
 주관: 새크라멘토교구 장소:정혜엘리사벳성당  
 참석자: 소토 주교님 등 40명내외 (예상)  
 당일 본당에서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8/10일(토) 오전8:30~오후6:00  
 저녁식사 오후6시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주최: 북가주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지도신부: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참가비: \$25 (Check 발행시: KSCNC) 점심.저녁제공  
 신청/문의: 김은영 폴리나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11. 사랑의 급식 (8구역)

일시: 16일(주일) 모든미사후 친교실  
 메뉴: 짜장밥 금액: \$5/1인당  
 도네이션은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주일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전례봉사	연중 제11주일 (6/16)	연중 제12주일 (6/23)	연중 제13주일 (6/30)	연중 제14주일 (7/7)
미사해설	김선식 / 최금주	김아영 / 조용주	정미정 / 김진영	박문교 / 이해련
복사	황건영 / 허준희 송돈희 / 김규철	권오승 최준우 / 김병수	김승제 김영준 / 김규철	김규철 / 장현철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mailto: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뽕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mailto: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http://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